

# 한국의 裨補風水論\*

최 원 석\*\*

## A Study on the *Bibo* Geomancy in Korea\*

Won-Suk Choi\*\*

**요약** : 비보경관은 한국의 전통취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며, 비보풍수적 전통은 한국의 지리적 생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에 지리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기존 학계의 한국풍수 연구에서도 간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裨補論은 擇地論과 더불어 한국풍수의 사상적 구성 축을 이루며 기존의 한국풍수론 체계에 한 구성요소로서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그 논거로서 비보풍수의 개념과 구성 및 이론적 배경, 역사적 변천, 형태 및 기능, 동북아시아 비보 양상 비교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비보풍수론은 기존 풍수론의 산, 수, 방위라는 3요소에 문화 요소를 더한 4자의 상호조합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비보 형태나 수단은 共時的으로 장소나 조성 주제에 따라 특수성을 나타내며, 通時的으로 민속화 과정을 통하여 그 양식이 변모하거나 신앙적 비보 형태에서 합리적 비보형태로 발전하는 문화적 進化 양상을 보인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보편적인 비보적 思维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보의 원리와 방법, 민간신앙과의 복합적 양상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비보의 형태, 기능, 규모 등에서 각 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주요어 : 비보, 비보풍수, 비보 경관

**Abstract** : The Landscape of the *Bibo* Geomancy is generally showed in Korean traditional settlements. The tradition of the *Bibo* Geomancy was given much weight in the Korean geographic history of life, so it could be a important research theme. The discussion in my dissertation, I insist on that, a comment of the *Bibo* together with a comment of the selection of proper sites composed as axis in Korean geomancy. As a grounds basis of an argument, I described on the concept and the composition of the *Bibo* Geomancy, the backgrounds of the theory,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Bibo* Geomancy in Korea, the form and the function of the *Bibo* and the comparison with the *Bibo*-Geomancy of the north-east Asia.

**Key Words** : *Bibo*, *Bibo* Geomancy, *Bibo*-landscape

###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의 비보풍수적 전통에 대한 基調를 살펴보고 비보풍수론에 관한 논의를 개진한 글이다.<sup>1)</sup> 한국의 전통취락에서 비보 경관은 일반적으로 발견되며, 비보풍수적 전통은 지리적 생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에 이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됨에도 불구하고<sup>2)</sup> 아직 본격

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풍수 이론체계 및 구성요소에서도 올바르게 자리매김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비보풍수적 전통을 비추어 본 비보풍수의 위상 문제이다. 한국풍수사에서 裨補論은 擇地論(相地論)과 더불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비보론은 한국 풍수론의 구성체계에서

\* 이 글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임.

\*\* 성신여대 지리학과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포함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보풍수의 개념과 구성, 비보풍수론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함과 아울러 한국 비보풍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한국의 취락 경관에서 널리 드러나는 풍수비보의 형태와 기능은 어떠한지를 지역적 특성을 증시하면서 정리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의 비보풍수와 비교하여 본 한국적 비보풍수의 특성 문제이다. 비보풍수는 중국, 대만,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 보편적으로 드러나며, 그 풍수비보의 원리나 방법, 형태, 기능 등에서 유사하나 각 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수성이 있다. 이들 나라의 비보풍수적 양상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적 비보풍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 2. 비보풍수의 概念과 構成

### 1) 비보의 개념

비보의 문헌적 용례는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 등 고려 및 조선시대 관련 문헌에 다수 나타난다. ‘裨補’는 ‘山川裨補’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풍수적 조건을 보완하는 개념의 일반명사로 쓰였다. 비보에 대한 言說을 ‘裨補說’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조에는 卑下되어 ‘裨補術’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였다. 고려조에서는 비보 처[사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여 ‘裨補所’ 혹은 ‘裨補寺社’라 했고, 이를 登載한 기록문서를 ‘裨補記’ 혹은 그냥 ‘裨補’라고도 썼다. 또한 비보 대상에 지역계층적 차등과 격을 두어 ‘國家裨補所’ 혹은 ‘國都裨補’, ‘郡裨補所’ 등으로 구분 지어 일컫기도 하였다.

비보의 法式은 협의의 裨補法과 壓勝法(혹은 禳鎮法)으로 구성된다. 裨補法[狹義]는 補 혹은 補虛, 培補라고도 호칭하며<sup>3)</sup>, 壓勝은 厭勝 혹은 鎮禳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裨補는 地理環境의 不足한 조건을 더하고 북돋는 원리이고, 壓勝은 地理環境의 過한 與件을 빼고 누르는 원리이다. ‘鎮禳’에 관해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用例로써, ‘裨補란 禳鎮·裨補하여 和氣를 順合하는 것’, ‘不足하면 裨

補하고 過하면 禳鎮한다’, ‘道說의 裨補法은 經祝鎮禳法’ 등의 표현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보는 地理(風水)의 조건을 보완하는 人文的 行態를 일컫는 범주로서, 자연과 문화의 상보적 논리에서 출발한다. 비보는 풍수상 凶地일 지라도 적절한 비보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吉地的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람은 자연(地氣)의 영향을 調節할 수 있는 調整者로서의 位相을 지닌다. 곧 풍수는 자연의 祥瑞로운 영향 하에 있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가르치나(De Groot, 1964, 935), 비보는 사람이 환경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適地로 가꾸는 방법을 가르친다.

비보적 관념의 발단은 원시의 借力信仰 및 呪符信仰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地理 혹은 地力裨補는 이러한 신앙이 토지의 힘을 증가시키는 일에 응용된 것이다. 비보관념은 풍수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나(村山智順, 1931, 773-774) 思想史的으로 풍수와 긴밀히 결합하여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비보풍수론으로 전개·발전하였다.

住民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비보적 장치와 경로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주거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環境認知에서 誘發된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며, 특히 集團心理的으로 한 집단의 認知環境上에 心理的 不安 요인이 있을 경우에 비보는 이를 적절히 해소하여 그 집단의 환경심리적인 안정과 조화를 이끄는 문화적 장치가 된다.

### 2) 비보풍수의 定義와 構成

비보풍수는 自然價値를 증시하는 풍수적 전통과 自然補合的 인문가치를 강조하는 비보적 전통이 相補的으로 結合하여 再構成된 일종의 文化融合으로서 完結的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환경의 구성을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비보풍수는 자연환경의 構成에 부족함이 있을 때 人爲的 環境을 構築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風水의 調和(the geomantic harmony)를 이루기 위해 자연을 變形할 수 있으며(Yoon, 1976, 3) 구체적으로는 地形을 補修하고 風水를 改良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비보풍수는 현실적인 풍수적 방책으로서 특히 厭勝은 도읍풍

수에서 필수적인 것이었으니, 도움을 위시한 集團陽基의 풍수적 조건이 凶하더라도 移轉하기 어려워 인위적으로 厭勝하는 방법이 강구되었던 것이다(村山智順, 1931, 762). 요컨대 풍수비보는 풍수적 환경에 부족함이 있을 때 人文的 환경을 相補함으로써 風水의 調和를 이루고 改良함을 목적으로 한다.

風水史에서 볼 때 初期的 풍수의 개념범주는 비보를 內包하고 있었다. 『錦囊經』에서 “古人은 그것(氣)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머물게 하였으니 이를 일러 풍수라고 한다(古人 聚之使不散 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sup>4)</sup>라고 定義에서 보나 “눈의 교모함과 사람의 노력을 갖추어서 완전함을 좇고 결함을 피하되 높일 곳은 높이고 낮출 곳은 낮춰라(工力之具 工力之具 趨全避闕 增高益下)”<sup>5)</sup>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당시의 풍수는 비보를 포함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以後 풍수론은 自然價値에 치중하고 自然價値가 集中된(氣가 모인) 장소가 어딘지를 찾는 擇地論이 盛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人爲的으로 氣를 모이게 하는 裨補的 논의는 그 역할 및 비중과 의미가 縮小되었다. 그러나 실제 취락에서는 비보법이 매우 넓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기능하였으며,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는 비보가 널리 확산되었으니 이는 傳統的으로 巫敎와 佛敎의 人本的 自然觀의 영향에 힘입어 중국에서 受容된 風水論의 自然偏向을 地人中道的 均衡 상태로 맞추는·思想的 丈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裨補風水論은 風水의 山·水·方位에 文化 요소를 더하여 4자의 相互組合으로 구성된다. 곧 비보 풍수론은 기존 풍수의 山·水·方位로 대별되는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신앙, 상징, 조경, 놀이 등의 문화적 요소가 복합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한국풍수의 전통적 구성체계는 크게 擇地論(相地論)과 裨補論을 들 수 있다. 이병도(1947, 29)도 지적했듯이, 한국풍수의 宗을 이루는 道說의 風水에 의하면 地理(山水)에는 곳에 따라 衰旺이 있고 順逆이 있으므로 旺處·順處를 택하여 거주할 것과, 衰處·逆處를 인공적으로 혹은 佛力(寺塔)으로 裨補·鎮壓할 것을 唱導하였던 것이다. 한편 윤홍기(2001, 352)도 풍수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자연이 결정한 길지를 찾아 적응하고 이차적으로 자연을 결점을 인간이 보강해가며 사는 방식이라고 정리하였다. 위에서 말한 택지론이란 明堂吉地가 어딘지를 감별하고 찾는 논리체계로서 최창조(1990, 178)의 분류에 의하면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形局論의 체계로 구성되고, 비보론은 지리적 조건의 欠缺을 補完하고 適地로 조성하는 논리체계로서 필자는 이를 龍脈裨補法, 藏風裨補法, 水口裨補法, 得水裨補法, 形局裨補法, 凶相遮蔽法, 火氣防禦法 등으로 命名하고자 한다(그림 1).

그런데 이러한 비보적 전통은 한국풍수론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풍수의 이론체계에서는 속하지 않았다. 곧 村山智順(1931, 276)은 풍수의 구성을 山, 水, 方位의 3요소로, 풍수의 법술을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占穴法으로 나누고, 비보는 다만 기존 풍수법술에서 인위적으로 吉局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前述한 최창조의 한국 풍수 이론 체계 구성에서도 비보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상술하겠지만 비보론은 한국풍수의 이론 체계에 간룡법, 장풍법 등과 함께 마땅히 포함되어 구성요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

風水論	
擇地論	裨補論
看龍法	龍脈裨補
藏風法	藏風裨補
得水法	得水裨補
形局論	形局裨補
定穴法	凶相遮蔽
坐向論	火氣防禦

그림 1. 韓國風水論의 構成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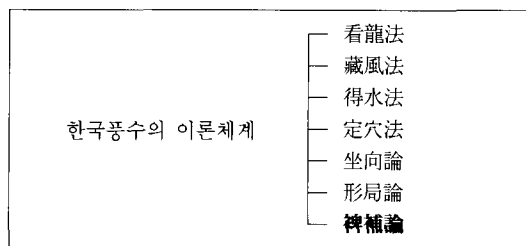


그림 2. 韓國風水論 體系의 再構成

단한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한국풍수론 체계를 새로이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再構成을 시도하였다(그림 2).

### 3) 비보풍수의 이론적 배경

#### (1) 風水書의 裨補 論議

東洋地理學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洛書』에 근거하여 발달한 九星說을 포함하며 『易經』의 八卦說, 『書經』의 五行說, 『左傳』과 『國語』의 陰陽說 등의 諸說을 받아들여 서서히 체계화 하다가 3세기에 이르러 山水判斷을 重視하는 '形勢學派'의 기초가 생겨(De Groot, 1964) '理氣學派'와 더불어 양대 이론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中國 風水書에서의 주요 관심은 명당이 어디인지를 찾는 擇地論에 집중되어 있고 비보는 枝葉의으로 취급되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경전일수록 그러하니 『靑鳥經』·『錦囊經』과 唐代의 『雪心賦』 등의 경전에 비보적 내용은 한 두 句節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보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宋代의 『發微論』에 와서야 하나의 篇名[裁成篇]을 두어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졌다. 『發微論』은 性理學의 영향을 받은 儒家의인 풍수서라는 사실이 儒家의 인본주의적 경향과 결부되어 비보적 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明代에는 水口論이 성행하였고 清代의 여러 풍수서에는 水口 개념과 작용의 의미를 提起하고 있으니(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91, 135) 이 시기에 水口裨補 역시 관심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清代에 비보적 논의가 많았을 것이라는 증거는 清代의 風水經典 註釋文에 비보적 해설이 多數 등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서도 그러하다.<sup>6)</sup>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풍수상의 비보적 논의는 宋代 이후 明·清代에 본격화한 後發 풍수이론임을 알 수 있다. 宋代 이후에 비보가 본격화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 중의 하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性理學이 풍수를 포함하여 사회 제 사상에 끼친 人本主義의 영향이었다.

初·中期 風水經典에서 관정된 凶한 풍수적 조건은 後代의 註釋에서는 비보를 통하면 吉地로 바꿀 수 있다고 言明되는 바, 이러한 변화의 의미력은 송대 이후로 風水의 過程에서 사람의 비중이

前期에 비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초기풍수에서의 自然決定的 吉凶判定的 常數的 方程式이 비보적 요소의 개입으로 인하여 變數的 方程式으로 바뀐 風水史의인 명당 개념의 획기적 變轉이었다. 곧 唐代에는 凶한 풍수적 조건으로 不可避한 것이었지만 清代에 와서는 비보를 통하여 凶을 吉로 바꿀 수 있다는 풍수적 명당 개념의 확충이요 風水觀의 전환인 것이다.

#### (2) 水口裨補論

취락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風水의 裨補에서 水口裨補論은 핵심적인 요소이자 논리가 되며, 수구비보는 한국의 전통취락의 경관상에서 普遍的이고 典形的인 경관요소를 이룬다.

水口란 局內的 明堂水가 합쳐 밖으로 흘러 나가는 곳으로(최창조, 1984, 118) 지형 조건상 空缺되어 있는 경우 이곳을 숲이나 造山 등의 수단을 써서 비보하는 것을 水口裨補라고 한다(그림 3).

수구비보는 聚落(특히 마을)의 풍수적 비보에 주로 활용되며 그 중에서도 입지조건상 藏風局의 盆地立地에 주로 적용된다. 山間이나 山谷의 村落立地上 마을 뒤나 옆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마을 前方으로 경사져 溪流가 흘러 나가는 방향은 열려 있거나 틈이 벌어져 있는 지형이 흔하니 비유컨대 호리병 같은 地勢에서 목 부분이 水口가 된다. 그 수구로 마을 내의 地氣가 빠져간다고 생각하여 여기를 造山이나 숲 등의 수단을 통해서 비보한 것이다. 수구비보가 주로 村落의 풍수적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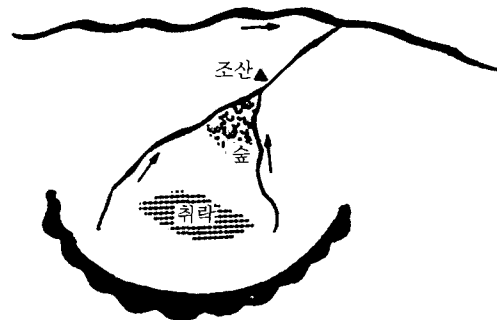


그림 3. 수구비보 개념도

마을에서 양갈래 명당수가 만나는 곳이 水口인데, 그곳이 허결한 경우에 숲이나 조산으로 비보하였다.

보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수구비보적 논의의 형성 및 발전이 마을 形成期와 同時期에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을 추정케 한다. 한국에서도 水口裨補의 景觀要素는 조선 중기 이후 在地土族에 의한 村落形成 時期와 때를 맞추어 마을의 주요 경관으로 자리잡는다.

中國의 風水史에서 水口 이론은 초기경전인 『靑烏經』 『錦囊經』 등에는 注視되지 않고 唐代의 저술인 『雪心賦』 및 『疑龍經』과 明代의 『人子須知』 등에서 강조되었고, 또 앞에서 언급했지만 수구론이 취락입지론이라는 성격상 마을형성과 시기를 같이 하기에 後代에 발전된 풍수론임을 알 수 있겠다. 중국에서 水口理論은 明代에 성행하였으며, 清代의 『地理大全』 『地理五訣』 『入地眼圖說』 『陰陽宅』 등의 책에는 水口 개념과 작용의 의미를 명확히 제기하였고, 실제 취락에서의 水口空間의 시스템은 중국 동남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何曉昕·宮崎順子 譯, 1995, 91, 135). 한국의 경우에도 『朝鮮王朝實錄』에 드러나듯이, 중국에서 수용된 水口論은 한양의 도성계획에 주요한 풍수적 공간구성 요소로 적용되었다.<sup>7)</sup> 또한 수구론은 취락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풍수논리로 채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擇里誌』의 可居地 선택 요건에서 水口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수구론은 이상과 같은 國都의 도성계획 뿐만 아니라 각 고을의 풍수적 국면의 형성에서 중시되었으며 특히 취락입지론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 사대부의 마을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친 李重煥(1690-1762)의 『擇里誌』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중환이 말한 擇里의 제1 요건은 '水口關鎖'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는 마을을 선택함에 있어 地理가 첫 번째이고, 地理에서도 "가장 먼저 수구를 보라(先看水口)"고 강조하면서 "수구의 형세는 빗장 잠겨야[關鎖]한다"고 단언하였다.<sup>8)</sup> 실학자 洪萬選(1643-1715)도 『山林經濟』에서, 卜居의 요건상, "地理는 (안이) 널찍하면서 (수구는) 잘록[緊束]하여야 한다. 대체로 (마을 안이) 널찍하면 財利가 생산될 수 있고, (마을 동구가) 잘록하면 재리가 모일 수 있다"<sup>9)</sup>는 글을 인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형은 동구는 닫힌 듯 좁고 안으로 들어 넓게 펼쳐

진 분지형 地勢로 요약된다.

이상에서 실학자의 수구에 관한 몇 가지 언급을 살피지만 그러한 논의가 모두 擇地上 수구의 자연적 조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수구의 문제점을 어떻게 裨補하는지에 대한 언명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취락에서는 고을과 마을을 막론하고 수구비보가 취락의 보편적인 경관 요소로 확인된다. 수구비보의 대부분은 숲이나 조산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수구막이'라고 일반명사화되어 마을의 주요 경관요소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비보풍수론에서 수구비보론은 중요한 구성 논리를 이루고, 아울러 수구비보 경관은 전통 취락의 경관요소로 주목되는 것이다.

### (3) 裨補의 應用論理

風水的 裨補에 應用된 論理 中에는 陰陽五行論과 類似法則의 패턴이 있는데, 이들 논리는 주로 민속과 결합되어 현지환경의 비보에 적용되었다.

음양오행론은 풍수적 비보의 배경 논리로서 실제적 비보에 응용되었는데 특히 陰陽論의 調和 원리와 五行論의 相生·相剋 원리가 주로 활용되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오행적 相剋原理는 비보에 동일하게 응용되나 한국적 裨補行態는 民俗信仰物과 象徵造形物을 다양하게 응용하거나, 비보적 地名을 附加하는 등의 象徵 조작을 통하여 心理的 相剋效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상징조형물을 활용하는 사례로서, 火氣 制壓을 위하여 水神의 상징물인 거북 혹은 자라 조형물을 火山과 마주보게 배치한다든지 솟대의 물오리를 火山과 마주보게 하거나, 소금단지 혹은 간물을 火山 봉우리에 묻는 등의 예가 있고, 비보적 지명의 사례로서 水와 관련한 이름을 붙이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웃 日本의 경우에도 防災呪術로서의 防火呪術, 對洪水呪術, 對風呪術 등의 五行相剋論을 응용한 다양한 민속신앙적 비보 형태가 있으며, 千葉縣의 泥祭는 洪水를 制壓하는 治水의 呪術로서 五行的 土剋水의 원리로서 水를 억압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sup>10)</sup>

이상과 같은 음양오행론 외에도 풍수적 비보의 패턴에서 발견되는 應用原理 중의 하나에 '類似的 법칙(Law of Similarity)'이 있다. 類似的 法則은 風

水形局論에 內在해 있는 背景原理로서 Frazer(1854~1941)가 그의 저술인 『황금가지(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에서 분석한 呪術의 기초가 되는 思考原理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類似的의 法則이란 '닭은 것은 닭은 것을 낳는다'는 思惟方式이다. 이 유사법칙은 '類似療法の 呪術(Homoeopathic Magic) 혹은 '模倣呪術(Imitative Magic)'을 誘發시키며 이 呪術의 效力은 共感法則에 기초한 共鳴呪術(Sympathetic Magic)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사물이 어떤 신비스러운 共感, 즉 보이지 않지만 일종의 에테르(ether)와 같은 것의 매개를 통해 서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sup>11)</sup> 現地에서 適用된 풍수적 비보의 실천 형태에는 類似的의 感應 논리에 기초한 사례가 무수히 많으며, 그것은 形局 補完 혹은 鎮壓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비보론은 初期風水에서 선언된 類物的 認知環境의 斷定的이거나 否定的 限界를 극복하고 吉地의 餘地를 확충한 對應論理이자 方式으로도 해석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明堂風水의 形局上으로는 決定論的으로 凶한 땅에 不過하였으나 禳補를 통해서 吉한 땅으로 바꾸는 전환적 局面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비보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자면 風水史의으로 비보론은 형국적 思考方式에서 起因된 풍수적 문제와 그 不安 要素를 해결하는 人爲的 解法論으로서, 역사적으로 발전된 地理的 態度이자 地人關係의 設定方式인 것이다.

### 3. 한국 비보풍수의 역사적 변천과정

한국 비보설의 사상적 始原은 巫敎로 거슬러 올라가며 역사상 본격적인 출발은 불교적 비보로서 한반도에서는 가야불교 초기에 첫 모습이 보이지만 비보설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시기는 7세기 경 신라시대부터이다. 新羅 下代 이후 풍수가 강력한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불교는 풍수와 교섭하였으며(金孝敬, 1940, 32) 이에 따라 불교는 풍수와 결합하여 風水寺塔이라는 비보사탑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풍수 역시 風水的 調和의 增強이나 缺點의 補完을 위해 탑이나 사찰을 짓는 등의 佛家的 影響을 수용하였다(Yoon, 1976, 168-

169). 이윽고 풍수설의 성행으로 기존의 불교적 비보는 풍수적 비보와 兩立되거나 혹은 풍수적 비보로 代替되어 나가며, 급기야 풍수적 비보가 불교적 비보를 흡수하게 된다<sup>12)</sup>. 이에 한국의 禳補史를 사상적으로 나누면, 통일신라시대까지의 佛敎的 禳補期, 나말 이후 고려시대의 佛敎 및 風水 禳補의 結合 및 兩立期, 조선시대의 風水的 禳補期로 구분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적 鎮護信仰에 의거한 寺塔禳補가 王都인 경주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나말려초에는 풍수사상의 성행과 지방호족의 得勢로 말미암아 風水的 動機에 의한 禳補寺塔이 地方要處에 설치되었다. 나말려초에 이르러 풍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보설이 호족세력에 의해 수용되며 불교의 선종이 지방으로 확산됨과 아울러 기존의 왕도에 설치되었던 鎮護寺塔 이외에도 전국의 각 지방에 풍수적 비보사탑이 창건되기에 이르렀다.

고려 왕조는 불교의 佛力과 풍수의 地力 이데올로기로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정책 운영의 기초로 삼았다. 왕건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도선의 비보사탑설은 한편으로는 왕권 집중 및 호족統御를 위한 이념으로 활용되어 지방의 사원을 통할하는 이념적 장치가 되고, 한편으로는 왕도인 개경을 보위하는 도성계획안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태조는 5大寺 10大寺 등의 國家禳補所를 개성에 설치하고<sup>13)</sup> 풍수상의 비보가 필요한 지점에 사탑을 배치하였으니 開國寺, 演福寺, 聖燈庵, 觀音窟 등은 그 대표적인 풍수사찰이다. 이후 풍수론이 도성의 지리적 운용 및 관리론으로 점차 자리를 굳힘에 따라 풍수적 비보가 시행되었는데 송악 主山の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소나무를 심거나 송충이를 잡기도 하였고, 도성의 허결한 부위에 堤防을 수축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풍수적 비보책은 佛力 비보에서 풍수적으로 한 걸음 進展된 형태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윽고 神宗 元年(1197)에는 '山川禳補都監'이라는 비보 관청이 설치되어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국내 곳곳에 造山·築墩하여 壓勝하는 등(이병도, 1947, 276) 국토관리를 하였으니 이는 기존의 사탑비보를 주관하던 禳補所보다 기능적 범위가 확대된 것이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宰樞와 重房의 관원들과 崔忠獻등이 術士

등을 모아서 國內의 山川을 비보하여 나라의 基業을 연장시키는 문제를 토의하게 하였고, 드디어 도감을 설치하였다”고 했다.<sup>14)</sup>

그러나 고려의 비보사탐은 이미 11세기 중반부터 사찰의 과도한 창건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시켰고 12세기 말에는 최충헌이 재상들의 원당을 철폐할 것을 건의하며 “도선밀기”에 기록된 사찰 이외에는 寺社田과 柴地를 지급하지 않았다.<sup>15)</sup> 마침내 고려 말의 공민왕대에 이르면 많은 비보사찰들이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어 왕은 重修를 교서한 바 있다.<sup>16)</sup> 조선조에 와서는 억불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비보사탐마저도 축소 혹은 혁파되었다. 태종 2년에 비보사찰이라도 常住僧 1백 명以下로 『道誥密記』에 있지 않는 사찰은 혁파할 것을 상언하고 있고, 태종 6년(1406)에 이르면, 『道誥密記』에 소속된 사찰이라도 田地와 奴婢를 新都의 各寺로 옮기게 조치하였다. 현재의 비보사찰은 고려조에 창건되어 개성을 비보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양을 비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어 태종 8년에는 비보사찰의 노비수를 30구로 대폭 축소한 것이고, 조선의 성종대를 지나면서 도선의 사탑비보설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조선의 유신들의 비보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 졌으며, 사탑비보설은 조정에서 강력히 부정되었다. 사탑비보설은 고려 말부터 衰退하기 시작하여 조선조 이후 排佛 정책의 기조와 함께 불교신앙적 기능은 없어지고 비보적 기능만 남겨나 이것도 점차 풍수적 비보로 대체되었으며 고려의 도선비보설은 드디어 15세기 말에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성종 16년(1486)에 “지금 도선이 비보했던 시설이 허물어지고 철거되어 거의 다하였다”<sup>17)</sup>는 말에서나, 당시 도선의 비보술을 장려하자는 내용으로 상소한 최호원이 유신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배되고 마는 조정의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비보사탐의 쇠퇴는 불교적 信仰裨補의 관념에서 풍수의 地力裨補의 관념으로 사상적이거나 실제적인 무게중심이 옮겨오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이는 神力에 의하여 행복을 얻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生氣있는 것에서 번영을 이루겠다는 理論的·人爲的인 사고방식에 이끌려 神力信仰보다 地力信仰으로 變遷하였던 것이다.<sup>18)</sup>

조선 개국 후 한양의 환경계획 및 구성원리에는

풍수적 비보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으나, 이는 고려의 불교적 비보 위주의 정책과는 차별되는 점이 있다. 조선조에 불교적 비보는 내리 衰退一路를 걷고 있었으나 風水的 裨補는 중요한 환경구성 원리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거하면 풍수적 비보는 세종, 문종, 성종 대에 활발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朝는 궁궐에 이르는 主山の 來脈과 도성의 藏風的 조건을 비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선조 主脈 비보의 경우, 고려 개경에서 主山인 송악에 限定하여 소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는 등의 집중적인 노력을 한 主山裨補의 개념에 비해 풍수론적으로 심화·발전된 형태이며, 비보의 환경적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主脈裨補는 세종 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형태도 主脈에 대한 補土, 植松, 伐採 및 伐石 禁止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藏風비보를 보더라도, 고려의 개경에서는 문종 7년(1053)에 도읍의 허결한 지세를 補虛하기 위해 언덕의 제방을 축조한 사실이 있지만 한양의 경우는 왕경의 청룡·백호 山勢에 대한 補虛에 매우 치중하고 있다. 그밖에도 도성 주위로 일정 범위의 산을 보전하여 도성의 山氣를 배양코자 하였으니 이 역시 비보환경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서 개경의 경우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得水 비보에 있어 한양에서는 고려조 개경의 불교적 비보 양식과는 달리 풍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주요한 비보적 논의로서는 경복궁터의 水量 부족, 明堂水 淨化, 수구 비보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왕도의 水口를 補虛하기 위해 假山을 조성하였다. 이렇듯 조선의 국도인 한양에서 행해진 풍수적 비보는 고려의 개성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다양화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가 확장된 것이었다.

고려시대 이후 전성기를 구가하며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던 풍수비보적 이데올로기는 儒學的 社會思想으로 대체되면서 15세기의 성종 대 무렵부터 衰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윽고 儒臣들의 비보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져 조선 문종 대 鄭安宗의 상언 중에, “지금에 있어서는 풍수라는 것이 오직 무덤을 앉히고 집을 세우는 것만을 일삼을 뿐이고, 산천의 國脈을 양진·비보하는 술법으로 쓰임을 듣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당시에는 음택

혹은 양택풍수가 일반화되어 있고 비보풍수술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국도의 하위 행정 체계인 지방 군현에서는 숲 등의 수단을 통한 邑治의 비보적 환경관리가 널리 행하여졌으며 특히 민간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在地士族에 의한 취락의 개척 및 형성 과정과 맞물리면서 비보적 경관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다.

#### 4. 한국 풍수비보의 形態와 機能

비보의 형태와 기능은 共時的으로 장소나 조성 주체에 따라 적절히 채택되는데 후술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명칭 형태 등에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通時的으로는 비보의 민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양식이 변모하거나, 신앙적 비보에서 합리적 비보로 발전하는 문화적 進化(cultural evolution) 과정을 보인다.

비보 형태는 時代·地域(場所)·造成主體(集團) 別에 따라 특성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찰이나 탑, 못과 숲”<sup>19)</sup>이 일반적이었고, 고을에서는 造山이나 種樹가 대표적인 비보수단이었다.<sup>20)</sup> 조성 주체에 따른 특징으로, 사탑은 주로 왕실이나 大邑의 비보 형태였는데 이는 비보사찰의 조성 및 운영에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비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숲 비보는 中小邑이나 마을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손쉽

게 조성하여 신속하고 상징적인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산은 마을의 대표적인 비보 형태였다.

비보 양식 중에서 불교적 비보수단의 發生과 變遷 過程을 개관하여 보자. 통일신라기의 鎮護寺塔은 本格的이고 初期的 비보 형태로서 고려시대에 걸쳐 널리 활용되었다. 진호사탑은 신라 말 이후 고려조에 들어와서 風水와 복합되면서 風水寺塔으로 그 성격과 형태가 바뀌었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抑佛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衰微하여지자 불교적인 양식의 사탑비보는 쇠퇴하고 造山·林藪 禱補가 점차 그것에 대신하여 행해졌다.<sup>21)</sup> 한편 민간에서는 민속신앙과 결합하여 造山, 장승, 솟대, 性石, 堂木 등 민간신앙물들이 비보기능을 새로이 담당하기도 했으며, 기존의 왕실이나 大邑에 주로 설치되었던 風水塔은 略化된 양식의 비보 돌탑으로 變容하여 民俗化되었다. 불교적 비보수단이 변모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一例로서 石幢竿을 들 수 있는데, 석당간은 원래 사찰의 標識物이었으나 이후 풍수적 비보물로 轉用되었으니, 조선조에 들어와 고을에서는 石竿柱로, 마을에서는 立石·집대로 변모하였던 것이다(송화섭, 1994, 244). 이처럼 불교적 양식에서 출발한 비보수단은 점차 불교의 사회적 退潮와 함께 신앙성은 脫殼되고 비보 기능만 유지된 채 簡略化 되거나 아니면 민속신앙물이나 古代 유적물(선돌, 고인돌, 古墳 등)로 代替된다.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비보형태로서 비보사탑·비보조형물·조산·숲, 못, 놀이 및 지명을 들

표 1. 비보형태와 기능

비보 유형	비보의 구성요소 및 형태	풍수비보의 기능
사탑	寺, 佛像(鐵佛, 藥師如來像, 彌勒像 등), 塔(주로 異形石塔), 幢竿(行舟形局의 비보물) 등	山勢鎮定, 補虛, 得水禱補, 形局補完, 凶相遮蔽, 方位禱補, 陰氣鎮壓, 수구막이
조형물	장생표, 선돌, 솟대(행주형국의 돛대), 장승, 男根石, 돌거북, 돌자라 등	마을수호, 形局補完, 方位禱補, 水口막이, 凶相鎮壓, 火氣防禦, 산세비보, 淫風防禦(남근석)
조산	흙무지형, 돌무지형, 林藪형, 혼합형, 古墳 및 遺蹟 轉用形, 天然山 呼稱形	補虛, 水口막이
숲	조산숲, 비보숲	補虛, 藏風, 水口막이, 地氣培養, 龍脈禱補, 水害防止, 凶相遮蔽
못		地氣停留, 火氣防禦, 凶相消泄, 形局補完(거북형국의 물, 와우형국의 구유), 相沖되는 地勢의 隔絶
지명 및 놀이	쇠머리대기, 줄다리기 등	山煞풀이, 地氣鎮壓, 龍脈牽引, 火氣鎮壓, 形局補完



어 각각의 형태와 기능, 기원, 명칭 등을 일반화하여 살펴보기로 할 것인데, 우선 비보의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 1) 비보사탑

비보사탑은 한국 裨補史의 初期의 비보형태로서 道說의 裨補寺塔說에 이론적 根據를 두고 있다. 비보사탑의 구성요소에는 佛像, 塔, 幢竿 등이 있는데, 불상은 鐵佛과 藥師如來像, 彌勒像이 비보에 주로 쓰였고, 그 중 비보 鐵佛은 신라 말 九山門 관련 禪刹에 일부 나타난다. 호남지방의 경우 고려 말기 이후에는 미륵불이 邑治風水 차원에서 수구 막이로 세워졌고, 조선후기에는 미륵신앙물이 마을 비보에도 활용되었다(송화섭, 1994, 225-228). 비보적 기능의 탑은 형태상 자연석을 기반으로 삼은 異型石塔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보적 文樣으로서 四天王像이나 十二支神像이 標識되기도 한다. 특히 당간은 行舟形局의 보완물로서 쓰이곤 했는데, 주로 行舟形局에서 갖춰야 할 돛대로 상징 인식되었다. 비보사탑의 기능은 세분하여 水勢비보, 地勢비보로 나눌 수 있는데, 水勢 비보는 사탑을 설치함으로써 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고자 의도한 것으로, 다시 이것은 江水비보, 海波비보, 逆水비보, 水口비보 등의 기능을 한 사례가 있고, 地勢 裨補法은 사탑을 설치함으로써 地德을 비보화하는 것으로, 形局비보, 凶相비보, 山勢비보 등의 실례가 있다.

### 2) 비보조형물

비보적 상징조형물에는 장생표, 선돌, 솟대[진대 혹은 짐대], 장승, 남근석, 돌거북, 돌자라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것들은 주로 취락비보에 활용되었다. 또한 상징의례의 한 형태로서 火氣防禦를 위한 민속신앙적 간물(海水)비보가 있다. 이러한 간물신앙은 풍수적 못비보의 원형적 형태로 추정된다. 장승류의 기능은 마을 守護, 방위 守護, 산천비보, 음락비보, 佛法 守護, 경계표, 路標, 성문수호, 祈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보장승은 마을 수호, 방위 수호, 산천비보, 고을 비보의 역할을 한다. 비보 장승의 기원은 고려 초 사찰의 四方 山川을 비보하기 위하여 세운 長生標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천비보 長生標가 차츰 民間化하면서 辟邪의 鬼面

을 조각한 邑落裨補 장승이 나타난다(김두하, 1995, 247). 솟대는 그 기원이 고대적 신앙물이나 지역에 따라 풍수적 비보수단으로 轉用되기도 하였는데, 행주형국의 지세에 돛대로 활용된 경우가 많으며, 곳에 따라서는 솟대 위에 얹힌 오리가 火氣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는 補虛·防邪의 기능을 하는 솟대(거옥대)가 있다(이필영, 1989, 94).

### 3) 비보조산

비보 조산은 흙, 돌, 숲(나무)을 산 모양으로 造成하여 空缺한 데를 메움으로서 補虛 效果를 얻는 비보 유형으로서 흙무지, 돌무지(돌탑), 조산숲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그 중 조산숲은 思想的 계통상 樹木信仰과 風水地理가 融合된 것이다. 비보조산은 조산 중에서 풍수적 비보기능을 담당하는 조산을 일컬으며, 그것은 마을의 신앙 및 풍수적 비보의 구조물로서 일반적으로 갖춰진 전통촌락의 경관요소였다. 비보조산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塔·補虛山·(石)假山·造山藪·거오기 등으로도 쓰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所在의 造山類 지명을 개관하면, 순우리말로 지은피 혹은 즈므라고 하였으며, 형상을 본 따 알처럼 생겼다고 알미·알메 혹은 알봉이라고도 하고, 바꾸니를 얹어놓은 형상이라 하여 바꾸리봉이라고도 하였고 형국을 본 따 여의주배미라고도 하였다. 비보 조산의 歷史的 始源은 詳細하지 않으나 고려조 신종 원년(1197)에 설치된 山川裨補都監에서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초 한양의 水口에 假山을 설치하였음도 확인된다.<sup>23)</sup>

조산은 지역에 따라 형태와 기능, 입지 그리고 호칭상 특성을 나타내는데 전남의 우실<sup>24)</sup>, 평안·황해도의 수살, 경기북부의 축동, 제주도의 거오기 등이 있다. 평안·황해도에서 일컬어지는 '수살'이라는 것도 조산의 기능을 한다.<sup>25)</sup> 경기지방에서 다수 나타나는 축동도 조산의 지역적 한 형태로서 特記할 만하다. 축동비보는 독을 쌓아 자연지세를 보완한다는 것인데, 경기북부지역 마을의 경관에서 보이는 축동비보의 일반적 형태는 독 위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축동을 수살 및 우살과 비교해 보면, 형태상 우실·수살과는 달리 '독'을 조성하고 그 위에 나무를 줄지어 심는다는

점이 다르며, 지형적인 조건상 축동비보는 아산이나 구릉지의 저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 지형에 주로 나타나는 비보형태로서 우실 및 수살의 입지와 차이가 있다(최원석, 1999, 441-442). 제주도에선 방사 기능을 하는 돌탑이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돌탑에 까마귀 모양의 돌을 엮는 것도 특징이다. 호남지방의 경우, 좌도지방의 造塔이나 우도지방의 立石들은 수구막이 기능으로 마을입구에 세워지는 게 통상적이다(송화섭, 1994, 244).

조산의 造形形態를 분류하면 흙무지형[土築·土塊], 돌무지형[石積], 林藪形, 혼합형, 古墳 및 遺蹟轉用形, 天然山 呼稱形 등으로 나뉜다. 흙무지형은 흙을 쌓아 假山을 만든 경우로서 보통은 흙더미 위에 植樹하여 흙의 流失을 방지하고 규모가 外見上 크게 보이는 효과를 얻는다. 돌무지형은 돌탑 혹은 탑이라도 하는데 꼭지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제주도의 돌탑은 까마귀모양의 돌을 엮는다. 林藪形은 숲을 조성하여 산으로 삼는데 옛 문헌에는 造山藪<sup>26)</sup>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복합형은 흙, 돌, 숲 등의 여러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특이하게 옛 고본을 조산으로 삼는 사례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sup>27)</sup> 조산은 새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탑이나 민간신앙물 혹은 옛 유적을 비보수단으로 轉用하는 사례도 다수 있으며 天然의 산을 조산으로 삼아 호칭하기도 한다. 조산의 數는 하나 혹은 둘[雙]이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 셋, 넷, 다섯, 일곱 등이 있는데, 선산에 있었던 다섯 개의 조산은 봉황의 다섯 알을 상징하고 일곱의 경우는 북두칠성을 상징한다.

조산은 住民들이 認知하고 있는 풍수지리상의 空缺한 곳을 막는 비보 기능을 한다. 풍수적으로 虛한 地勢를 도와 地氣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地氣를 저장하는데, “흙을 쌓아 산을 만드니 地氣를 저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sup>28)</sup> 특히 마을조산의 경우는 虛缺·空虛·空遠한 水口를 막고 터를 鎮護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곳에 따라서는 형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경우 조산은 龍形局에 여의주, 鳳凰形局에 알, 行舟形局에 돛대의 상징성을 지닌다. 마을에서 마주 보이는 자연경관의 특정 부위가 陰部 형상으로 보이거나 女根 모양의 바위가 있을 경우에도 조산을 쌓아 淫風을 막고자 했는데 이 경우 돌탑의 꼭지돌

은 남근석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마을조산은 ‘돌탑제’라는 마을공동체적 의례가 수반되어 신앙화 되기도 하였다.

#### 4) 비보숲

비보숲의 문헌적 명칭은 裨補藪이며 양식상 廣義의 造山 범주에 걸쳐 있으나 조산에서 실용적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비보숲의 조성은 고려조 國都의 主山(松嶽)을 위주로 주위의 산에 한정되다가, 조선조 한양에 藪域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禁山 정책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國都의 숲 비보는 곧이어 지방의 大邑으로 확산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 촌락의 개척과 함께 촌 주변의 마을로 퍼졌다. 비보숲은 壬亂 도중 혹은 이후의 사회질서 혼란기에 훼손되었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다. 비보숲의 樹種은 촌락(특히 民村)의 경우에 토착림으로서의 혼합 교목이 많고 이는 특히 수구 위치에서 수구막이 기능과 결부되어 있다. 都邑과 班村의 비보림은 소나무를 대표종으로 하고 있다. 風水形局과 결부된 수종으로는 봉황형국에 오동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지네형국에 밤나무를 들 수 있다.

비보숲은 조산의 일반적인 기능인 補虛 藏風과 수구막이 외에도 특수하게는 地氣培養 및 龍脈裨補, 水害防止, 凶相遮蔽 등의 고유 기능을 발휘한다. 보호기능의 숲 중에서 특히 山谷盆地의 보호기능은 수구막이숲으로 일반화되었다. 숲을 활용한 비보는 기능상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비보효과가 좋아서 취락의 비보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숲을 조성하면 물리적인 방풍 등의 비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휴양림 등의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土築한 흙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방 보조 역할과, 지형의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의 잇점도 있다. 다만 나무의 성장 시간이 비교적 길어 돌탑과 같이 비보 효과가 조성 즉시 혹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는 않는 결점이 있다. 이처럼 숲은 조산이 지니는 상징성 및 신앙성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보가 가능한 점도 지적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비보숲은 방풍, 보온, 홍수방지, 휴양소 역할을 겸하는 多機能的이고 效率的인 비보수단이다.

## 5) 비보못

비보못의 일반적 기능은 地氣를 머물게 한다(留氣). 이에 관한 풍수론 상의 典據로서, 『錦囊經』에 “기는 물에 임하면 머문다(氣界水即止)”는 원리가 있다. 따라서 취락이 경사진 곳에 입지 하여 地氣가 빠져나가는 형국일 때 못을 조성하여 막는다. 그리고 못으로 하여금 藏風의 條件을 보완하는데 조선 초 崇禮門 밖에 못을 판 것은 경복궁의 오른 팔에 해당하는 山勢가 낮고 미약하여 품에 안는 판국이 없기 때문이었다.<sup>29)</sup> 得水 비보의 기능으로서 못을 조성함으로써 基地에서 곧장 빠져나가는 물의 流速을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마을과 고을에서 비보못은 흔히 火氣를 방어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는 五行論으로 水는 火를 극하기에[水克火] 火氣가 성한 地勢에 못을 파서 비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을에서는 못에 凶相을 비치게 하여 그 기운을 사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도 형국을 보완하는 못도 있는데 이 경우 거북 형국에는 물, 臥牛 형국에는 구유 등의 상징성을 갖는다. 특수한 기능으로는 氣의 相沖을 隔絶시켜 막기도 한다.

## 6) 비보놀이 및 비보지명

비보놀이와 비보지명은 행위 및 의식을 통하여 풍수비보를 하는 양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비보놀이는 大同놀이라는 集團文化的인 經路를 통해서 裨補 효과를 꾀하는 경우로서 주로 줄다리 기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慶尙左道의 靈山·蔚山·彦陽邑과 淸송의 구산리·천전리, 함안의 구성리에는 大同놀이라는 集團文化的인 經路를 통해서 裨補 효과를 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풍수적 비보의 동기에서 유래된 민속놀이로서 주목된다. 비보 기능별로 살펴보면 영산의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는 각각 山煞풀이와 地氣鎮壓의 기능을 하였고, 울산과 언양의 줄다리기는 龍脈牽引, 淸송 구산리와 천전리의 회싸움은 火氣鎮壓, 함안 구성리의 줄다리기는 形局을 補完하는 의미를 지녔다.<sup>30)</sup>

地名裨補는 呼名하여 裨補效果를 얻고자 하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裨補 형태로서 대개 실제적인 형태의 비보를 시행 후에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附加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자적인 기능

을 할 때는 地勢를 鎮壓하거나 형국보완의 기능을 하는 예가 많다. 특히 고을의 비보지명의 경우,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컨대 봉황 형국과 관련된 비보지명이 영천, 선산, 진주 등지에 반복되어 드러났다.

## 5. 동아시아의 풍수비보 양상

동아시아는 風水文化圈을 이루고 있고 비보적 思维 역시 보편적이거나 비보의 형태, 기능, 규모 등의 측면에서 各國의 문화적 배경 따라 多少 차이가 난다. 동양 3국의 비보 양상을 살피는 일은 비보의 문화적 個性(personality)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여기에는 비보의 源流, 傳播와 變貌, 特性 및 그 背景 등이 多角적으로 살펴져야 하나 本考에서는 다만 비보 형태 및 기능에 초점을 두고 對比하고자 한다.

비보가 중국에서 전파된 것인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풍수의 기원만큼이나 論亂의 餘地가 있을 수 있다. 村山智順(1931, 280)이 한국 비보법의 원류인 도선의 비보를 중국 풍수사상의 전승으로 본 점이나, 何曉昕·羅雋(1995, 238-239)가 평양의 사례를 들어 한국 도읍풍수의 厭勝法은 중국이 母體라고 지적한 것은 중국의 비보가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라는 견해로서 文化傳播의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보의 파급경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된 經路와,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일본의 오키나와로 전파된 경로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방적으로 문화전파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점은, 전래의 巫教에 비보적 문화요소가 자리잡고, 도선의 비보설이 固有한 仙道の 맥을 이었으며, 취락현장에서 다수 발견되는 조산은 古代의 샤머니즘 및 自然信仰에서 발전한 측면이 있는 등 文化發展의인 측면도看過할 수 없다고 본다.

동양 3국의 비보양상에서 드러나는 유사성은 비보수단 및 방법과 기능에서 나타나고 비보에 민간 신앙과 풍수가 복합되어 있는 양태도 닮은 점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오키나와를 제외하고는 풍수적 비보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풍수적 비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국의 풍수가들은 음양 오행론을 비보에 응용하였고 땅의 자연적 형상을 改良하는데 있어서 五行의 작용을 조절하는 術을 창안하였으며(De Groot, 1964, 958) 各 府縣城의 地方志 中에 비보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31)</sup> 중국의 비보수단 및 방법과 현장사례를 한국의 것과 對比하여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의 풍수적 비보는 引水法, 곧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1의 주안점으로 둔다. 이점에서 중국의 풍수적 비보는,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비보법인 造山法과 비교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는 달리 물이 귀한 중국의 풍토성에서 연유한다. 중국의 풍수서에서 물은 풍수에 있어서의 財源과 吉事의 상징이므로 물을 끌어 들여 기초를 補하는 것이 가장 요점이 된다. 그들은 물이라는 요소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引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도랑[溝]과 用水路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서 이는 實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인 사례가 安徽省 南部의 山間區인 宏村에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陽宅會心集』에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면 地脈을 움트게 하고 眞氣를 배양한다”는 풍수론적 典據가 있다. 여기에는 지형적 조건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順局으로 널찍한 경우에는 못을 파서 물을 모으고, 來水가 性急할 경우에는 못을 파서 물이 고요하게 흐르게 하며, 煞曜의 방향에 壓迫하는 높은 산이 있어 陰의 煞氣가 쏘아 들어올 경우 못을 파서 純化한다(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125-128). 중국에서는 自然水가 빠른 속도로 터를 통과하여 흐를 경우 水流의 기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묘 혹은 집, 祠堂의 앞쪽에 水槽를 구축한다(De Groot, 1964, 946). 한국의 경우도 引水法은 물길을 끌어 들여 마을 앞을 두르도록 水路를 修築한다거나, 못을 파서 引水하는데 특히 火氣防禦를 위해 引水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국은 補山이라하여 주로 나무를 심어서 龍의 背後에 있는 砂山을 補하였다. 이 경우는 촌락의 下砂와 水口, 또는 촌락의 背後와 龍山 등지

에 시행한다. 중국에는 풍수 상 필요하다면 산을 만들며 기존의 산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한다(渡邊欣雄, 1994, 23) 산을 補하는 방법은 넓게 樹木을 심는 것 외에도, 건물을 건조하거나, 흙을 쌓아 산의 高度를 높이거나, 산의 형상을 改變하기도 한다. 福建省 龍岩縣 銀樹에는 村의 背後에 수목을 심었고, 廣東縣·高要縣에는 來脈의 砂岡을 정비하여 三峰을 형성하였다. 福建省 建甌에는 水口에 수목을 심어 광대한 水口林을 형성하였다(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130-131). 이러한 비보유형을 한국에서는 造山이라 통칭하며 그 기능과 방식은 유사하다.

오키나와에서는 촌락의 氣가 漏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촌락 주위에 숲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오키나와 각지의 마을 주위에 남아 있는 ‘抱護林’으로서 이는 明治期(1868-1911)에 작성된 고지도에도 묘사되어 있다. 예컨대 오키나와 북부의 高島の 村에는 腰當森이라고 부르는 숲이 주위를 둘러싼데 이 숲은 水源涵養林으로서 보전되었다. 또한 首里의 王城을 중심으로 弁ヶ의 岳이라던지 白虎에 해당하는 末吉의 숲이 지금에도 훌륭하게 자연림의 숲으로 잔존하여 있다. 또한 中城城의 中村家에는 腰當森에 상응하는 人工的인 작은 언덕을 만들어 놓았다. 특히 琉球王國은 그 直轄地에 ‘御風水所’와 ‘御風水山’을 정하여 樹木과 土石을 관리하고 훼손하지 못하게 하였다(目崎茂和, 1993, 21-22, 101-102). 이상과 같은 오키나와의 사례는 한국(조선조)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데 특히 ‘御風水所’는 우리의 경우 ‘裨補所’라고 하였고 ‘御風水山’은 ‘禁山’이라고 하여 조선조에 도성 주위의 산에 대해 체계적인 비보적 관리를 한 바 있다.

셋째, 중국은 風水塔을 두어 龍脈을 鎮定시키고, 水口를 鎮壓하며<sup>32)</sup>, 文風을 진작하였다<sup>33)</sup>. 이러한 厭勝塔과 文峰塔의 功能은 風水를 鎮壓하며 形勢를 增補하는 기능을 하며 중국 대륙의 各府縣城에 성행하였다(堀込憲二, 180). 중국 동남부의 여러 촌락에는 주위의 山峰, 頂上, 山腹에 ‘龍首當鎮’ 혹은 ‘興文運’의 관념을 지니고 있는 風水塔을 조성하였다. 浙江省 龍游의 橫山寶塔은 張祠面山の 봉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이는 산의 형상이 ‘天馬馳槽’로서 그 머리가 안쪽으로 향하지 아니한 것을 꺼려 탑을 짓고 산을 鎮한 것이다. 비슷한 유형

으로 普陀山의 鎮莽塔과 天龍山의 鎮莽塔이 있으며, 江蘇省 常熟縣 城里에 있는 虞山은 山의 形像이 한 마리 늙은 물소가 쭈그려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牛山이라고도 하는데, 풍수에 근거하여 建造한 方塔이 있어 물소의 뿔로 설명된다. 그밖에도 이러한 풍수탑은 浙江省 紹興 怪山 上의 應天塔 등 많은 곳에 있다(高友謙, 1992, 171). 한국의 경우에도 풍수탑은 도읍의 대표적인 비보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중국처럼 文風을 진흥하는 기능은 없다. 앞서 浙江省 龍游의 橫山寶塔이 산이 달려 나가는 형상을 진압한 풍수탑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비보사찰로서 청도읍의 德寺가 있다. 이 절은 청도읍의 水口에 있는 주구산이 내뿜는 형세를 하고 있어 사찰로 진압한 것이다.

넷째, 중국에서는 廟·閣·亭·樓 등을 설치하여 靈氣를 모으고 殺氣를 방어하였다. 福建省 龍岩 新泉村에는 路地의 끝에 土地廟를 설치하여 殺氣를 막았고 廣州市 북쪽 越秀山 上의 鎮海樓 역시 明代에 조성된 유명한 風水樓이다(何曉昕 著, 宮崎 順子 譯, 1995, 152. 高友謙, 1992, 173-174). 한국의 경우는 비보적 목적으로 院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진주의 開慶院은 玉峰이 곶으로 節制를 받지 않는 것 같은 기상이 있어 院을 짓고 地氣를 눌렀다. 청도읍의 勒院은 곶 서쪽에 있는 渴馬峰의 형국이 渴馬騰之狀(목마른 말이 내달리는 형상)이라서 東軒이 있는 本州의 地靈이 流泄됨을 막기 위해 말에 굴레[勒]를 씌운다는 상징적 이름을 부가하여 勒院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다섯째, 자연물에 비보적 상징의미를 부가한 예로서, “北京에는 과거 ‘五鎮’이 있었는데 동방의 鎮은 黃木安이 되고, 북방의 鎮은 昆明湖가 되며, 중방의 鎮은 景山이 되니 이 셋은 자연물로 비보적 의미를 붙인 것이고, 그 외에 두 개의 鎮은 남방의 烟墩(俗名 石幢)으로 永定門 밖 1리쯤에 있고, 서방의 鎮은 大鐘寺로서 德勝門 밖 큰길 곁에 있다”고 한 바(高友謙, 1992, 173), 자연물에 비보적 의미를 부가하는 것은 한국의 마을 비보에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천연의 산에 비보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부여하여 造山으로 삼는 사례가 있었다. 위 인용문에 나타난 남방이나 서방에서의 불교적 비보형태는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과 일본에도 공통

적인 비보유형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도시는 東寺·西寺로 都入口의 羅城門을 수호하거나 여기 저기에 사찰과 탑 등을 설치하여 방어를 위한 裝置를 둔다”고 하였는데(渡邊欣雄, 1994, 26) 이러한 배치방식은 한국의 여러 곶(예천·전주 등)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섯째,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풍수적 비보와 민간신앙의 복합적 양상도 주택비보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유형을 『中國風水』의 저자 高友謙은 ‘風水巫術’로 분류하였다. 집터를 안정시키는 符籍으로서 『道藏』의 神符類에 太上秘法鎮宅靈符라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오키나와에는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石敢當’이라는 돌(화강암 石版)을 설치하는 住宅裨補法이 있다. 石敢當은 매우 오랜 淵源을 지니고 있는데 멀리 唐代 大曆 5년(77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34)</sup> 중국 농촌의 ‘石敢當’은 長方形의 石碑와 ‘鎮山海’라는 神石으로 災厄을 쫓고 百鬼를 鎮壓하는 기능이 있으며 일종의 ‘靈石鎮壓法’으로서 환경을 聖域化하고 改變하는 효과가 있다. 石敢當은 주로 道路가 沖射할 경우에 이를 鎮壓하기 위해 활용되며, 그밖에도 마을 입구, 하천이나 못 연안, 문 앞으로 길에 면한 곳, 항구를 마주 한 대문, 교량, 가옥 등에 설치된다. 가옥의 경우 그것은 구내의 적당한 지점이나 외벽의 안에 위치한다. 이러한 유형은 일본의 오키나와에도 나타나며 삼거리에 石敢當이라는 작은 비석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하면 직진하여 오는 기가 충돌하여도 힘이 옆으로 피하고 어떤 것은 反轉해 버리고 약화된다고 믿는다(De Groot, 1964, 1041-1942).

이상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비보와 비교하여 보면, 중국은 引水 비보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조산비보나 형국비보가 성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수구비보의 동기 및 기능은 공통적이나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 중국은 못을 파서 지맥을 움트게 하거나 凶氣를 純化하고 있으나 한국은 못으로 화재를 방어하거나 地氣의 漏泄을 방지하는 예가 많다. 風水塔으로 文風을 振作하는 형태라든지 廟·閣·亭·樓 등이 殺氣를 防禦하게 하는 것도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난 비보적 특성이다. 한국은 중국처럼 凶相에 대한 改造 혹은 造作 보다는 흥

상을 遮蔽하는 경우가 많으며, 탑이나 돌무지는 주로 補虛 機能을 담당한다. 풍수와 민간신앙의 복합적 산물로 중국에는 '石敢當'이 있고 이것은 오키나와에까지 波及되었으나 한국에는 발견되지 않고 장승류의 형태가 민속비보의 主種을 이루었다. 불교적 寺塔鎮護의 관념과 배치 방식은 동아시아에 공통적이나 風水寺塔은 일본에 나타나지 않는다. 琉球王國이 直轄地에 설치한 '御風水所'·'御風水山'은 朝鮮朝의 '裨補所' 및 '禁山'과 같은 것이다.

## 6. 맺음말

한국의 전통취락에서 비보풍수적 경관은 일반적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리생활사에서 비보풍수적 전통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자리잡고 있어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기존의 학계에서 비보론의 위상은 한국 풍수의 논리 및 구성 체계에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의 비보풍수론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성, 이론적 배경, 한국 비보풍수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개관, 한국의 취락 경관에서 널리 드러나는 풍수비보의 형태와 기능, 동북아시아 비보 양상 비교 등에 관한 논의를 준거로, 한국의 풍수에서 裨補論은 擇地論과 더불어 사상적 구성 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등과 더불어 이론적 구성 요소의 하나로 비보론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비보론은 기존 풍수론의 산, 수, 방위라는 3요소에 문화 요소를 더한 4자의 상호조합으로 구성되며 기능상 龍脈裨補·藏風裨補, 得水裨補, 形局裨補, 凶相遮蔽, 火氣防禦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에서 비보수단의 양식 혹은 형태는 共時的으로 장소나 조성 주체에 따라 적절히 채택되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며, 通時的으로는 민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양식이 변모하거나 신앙적 비보 형태에서 합리적 비보형태로 발전하는 문화적 進化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비보풍수는 동북아시아의 비보적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성격과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다. 동아시아는 보편적인 비보적 思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보의 원리와 방법, 민간신앙과의 복합적 양상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비보형태, 기능, 규모 등의 측면에서 각 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이 글은 한국에서 비보풍수적 전통의 기초를 개진한 것으로서, 차후에는 한국 비보문화의 지역적 특성 및 그 배경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동북아시아 비보풍수의 비교연구를 통해 본 논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 註

- 1)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최원석, 영남 지방의 비보, 2000, 고려대 대학원)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임.
- 2) 최창조는 비보를 한국풍수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하였으며 90년 이후 비보사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255. 한국의 풍수지리, 민음사, 329). 그리고 윤홍기는 환경관리 이론으로서의 풍수비보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지적한 바 있다(윤홍기, 2001,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 지 제36권 제4호, 351-352)
- 3) 堀込憲二, "風水思想と清代台湾の城市-官撰地方志を中心史料とした検討" 儒佛道三教思想論攷, 平成三年, 山喜房佛書林, 179.
- 4) 『錦囊經』(奎章閣本), 13
- 5) 『錦囊經』(奎章閣本), 63
- 6) 그 중의 하나가 청대 孟浩의 『雪心賦』 註文이다.(『地理天機會元』, 1982, 寶蓮閣 影印本, 13-58)
- 7) 世宗實錄 30年 3月 8日. 文宗實錄 2年 3月 3日.
- 8) 擇里誌, 卜居總論
- 9) 山林經濟 卷1, 卜居
- 10) 吉野裕子, 1983, 陰陽五行と日本の民俗, 人文書院, 137-142.
- 11) Frazer, J.G., 1971, The Golden Bough-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Macmillan, 47-48.
- 12) 村山智順 著 최길성 역, 1931, 조선의 풍수, 민음사, 639.
- 13) 高麗史 卷 78, 志, 食貨, 田制.
- 14) 高麗史 卷 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條.
- 15) 高麗史 卷 78, 志, 食貨, 田制.
- 16)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1, 壬辰元年
- 17) 成宗實錄 16年 1月 8日.
- 18)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朝鮮的林藪, 1928, 23.
- 19) 成宗實錄 16年 1月5日.
- 20) 世宗實錄 30年 3月 8日.
- 21)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朝鮮的林藪, 1928, 26.
- 22) 權以鎮, 東京雜記刊誤(光文會本 東京雜記所收): 이병도,

- 같은 책, 276에서 재인용.
-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山川條.
- 24) 최덕원, “우실(村垣)의 信仰考”, 한국 민속학 22, 1989. 9, 109-122.
- 25) 孫晉泰, “蘇塗考”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8, 193-194.
- 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禮安縣 山川.
- 27) 경주 봉황대, 경산군 압량면 부적동, 경주 건천읍 금척리, 안동 울곡리, 함안 봉성리 등.
- 28) 新增東國輿地勝覽 漢城府 山川條: “假山: ~ 築土爲山, 似畜地氣.”
- 29) 世宗實錄 15年 7月 21日
- 3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좋고, 『영남지방의 비보』, 2000,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48-250을 참조하라.
- 31) 堀込憲二, 平成三年, 같은 책, 180.
- 32) 특히 담으로 水口를 진압하는 방법은 古代 城市에서 허다하게 나타난다. 杭州의 六和塔, 泉州의 溜江塔·六勝塔·姑嫂塔, 廣州의 赤崗塔·海龜塔·浮蓬塔 등이 그 사례로서 담의 직접적인 기능은 수구를 關鎖하고 形勢를 왕성하게 하며, 보조적으로 運航에 標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堀込憲二, 172). 福建省 泉州市는 3개의 大水口가 있는데 3基의 담을 써서 서서히 물을 끌어 들였다. 第一水口는 溜江石塔으로, 明의 萬曆年間(1573~1620)에 郡守 蔡繼善이 지세의 균형을 주기 위해 건립하였는데, 甯山·寶蓋山과 함께 鼎 모양의 지세를 만든 것이다. 第二水口는 石湖의 塔(六勝塔)이며, 第三水口는 石獅鎮의 동남 5리에 있는 寶蓋山上의 姑嫂塔이다. 이 담은 關鎖塔이라고도 하는데 『晉江縣志』에 “泉州郡을 關鎖하는 水口の 鎮塔”이라고 하였다(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192-193).
- 33) 文峰塔은 文塔·文風塔·文筆塔·文昌塔이라고도 하며 현재에도 많은 수가 향촌에 남아 있으며, 文峰塔의 위치는 縣城 교외의 산 위나 시골 및 소도시 출구의 언덕 위에 있다(王玉德, 1991, 265). 이것은 학문적인 기풍을 진흥시키는 상징과 함께 풍수적인 관념의 산물이다. 淸의 高見南이 지은 『相宅經纂』 卷二, “文筆高塔方位”에 보면, “과거에 합격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土地에는 甲·巽·丙·丁의 방위에 길지를 선택하여 文筆尖塔을 짓고 특별히 산보다 높으면 과거에 합격한다”고 적고 있다(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149-151). 湖北省 鍾祥縣의 文峰塔은 龍山 위에 唐朝 廣明 元年(880)에 건립되었고 明朝 洪武 22년(1389)에 중건되었다. 貴州 紫雲의 苗族과 布依族 自治縣에도 문필담이 있는데, 城北의 五峰은 붓걸이가 되고, 城東의 방죽은 벼루가 되어, 이것이 문예의 흥성을 祈求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安徽省 旌德縣城에도 文昌塔이 있는데 이 담은 旌德縣城의 形像이 ‘五龍出洞’이라 龍이 달아나는 형세이고, 또 縣城 서남쪽에 불꽃같은 형상의 梓山이 있어서 시내에 항상 失火를 야기하기에, 용을 안정시키고 火氣를 鎮壓하기 위해 淸朝 乾隆年間(1736-1795)에 조성한 것이다(王玉德, 1991, 265-266).
- 34) 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같은 책, 181-183, 高友謙, 1992, 같은 책, 159-161.

## 文獻

- 김두하, 1995, 박수와 장승, 집문당.
- 김학범, 1991, “한국의 마을園林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입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孝敬, 1940, “朝鮮佛教寺院選地に於ける風水信仰影響,” 佛教研究, 第4卷 3號, 32.
- 孫晉泰, 1948, “蘇塗考”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을유문화사, 193-194.
- 송화섭, 1994, “朝鮮後期 마을미륵의 形成背景과 그 性格,” 韓國思想史學, 제6집, 225-244.
- 윤홍기, 2001,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351-352
- 이병도, 1947,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史.
- 이필영, 1989, “한국 솟대 신앙의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논문, 94.
- 최덕원, 1989, “우실(村垣)의 信仰考,” 한국 민속학 22, 109-122.
- 최원석, 1999, “경기북부의 풍수신앙” 『경기민속지』 2, 경기도박물관, 441-442.
- 최원석, 2000, “嶺南地方의 裨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 高麗史 卷 78, 志, 食貨, 田制.
- 成宗實錄 16年 1月 8日.
- 世宗實錄 30年 3月 8日.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山川 擇里志 卜居總論 山林經濟, 卜居 青烏經(奎章閣本, 圖書番號 2329) 錦囊經(奎章閣本, 圖書番號 1741) 雪心賦 發微論(欽定四庫全書, 623-629)
- 村山智順, 1931, 朝鮮の風水,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28, 朝鮮の林藪.
- 王玉德, 1991, 神秘的風水, 慶西人民出版社.
- 何曉昕·羅雋, 1995, 風水史, 上海文藝出版社.
- 何曉昕 著 宮崎順子 譯, 1995, 風水探源, 人文書院.
- 高友謙, 1992, 中國風水, 中國華僑出版公司.
- 吉野裕子, 1983, 陰陽五行と日本の民俗, 人文書院.

최원석

堀込憲二, “風水思想と清代台湾の城市-官撰地方志  
を中心史料とした検討” 儒佛道三教思想論  
攷 平成三年, 山喜房佛書林, 179-180.

渡邊欣雄, 1994, 風水氣の景觀地理學, 人文書院.

目崎茂和, 1993. 12, “風水思想は環境を求えるか”  
地理 38-11, 21-22.

Frazer, J.G, 1971, *The Golden Bough-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Macmillan.

De Groot, J.J.M., 1972, *The Religious System of China III*,

Taipei: Ch'eng-Wen.

Yoon, Hong-Key, 1976,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Asian  
Folklore and Social Life Monographs*, No. 88, The  
Orient Cultural Service, Taipei,op.cit.

원고접수일 2002. 3. 25

최종원고접수일 2002. 6. 8